

# 월드컵 대회서 이 기쁨 누리자



## “예리한 플레이 살려내겠다”

아드보카트 “가나전 연습과정일 뿐...자신있어”

딕 아드보카트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독일 쾰른 입성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치른 가나와 평가전에서 뜻밖의 1-3 완패를 당했지만 여전히 태극전사들에 대한 강한 확신을 숨기지 않았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5일(이하 한국시간) 새벽 가나전을 끝내고 공식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속소로 돌아가는 버스 앞에서 외신기자들과 가진 스태프 인터뷰를 통해 “결과만을 원한다면 소말리아, 리히텐슈타인, 자메이카 등 약체들을 상대할 수도 있었다”며 “이날 가나와 평가전은 연습의 과정이다”고 강조했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특히 “나는 여전히 한국 대표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2006독일월드컵을 앞두고 강한 자신감을 표현했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전지훈련에 두 차례 치른 평가전에서 1무1패(1골3실점)의 좋지 않은 성적을 거뒀지만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월드컵 본선에 대한 준비과정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럼 아드보카트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아드보카트 감독은 우선 가나전을 끝내고 난 뒤 공식 기자회견에서 “오늘 졌다고 해

서 독일에 들어가서 치를 월드컵 본선 경기를 걱정하지 않는다”며 “플레이의 예리함이 살아야 할 선수들도 있었다. 남은 기간 예리한 플레이를 최대한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전은 대표팀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고치는 좋은 기회가 되는 만큼 결과보다는 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아드보카트 감독의 속내를 엿볼 수 있는 말이다. 특히 평가전에서 단단히 ‘예방주사’를 맞고 월드컵 본선에 나서지 않으면 자칫 선수단 분위기가 틀어져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감독의 ‘지도철학’을 내비치는 대목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 아드보카트호 드러난 문제점

## 공격·패스 무기력 중원 압박도 실패

아드보카트호가 독일월드컵 본선 첫 경기를 불과 9일 남긴 시점에서 적잖은 속제를 떠안았다. 4일 밤(이하 한국시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이스터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가나와 평가전에서 아드보카트호는 공격, 중원, 수비진 기릴 것없이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공격진=무더진 속도와 패스 전문가들은 공격진이 속도에서 가나에 완전히 밀렸다고 진단했다. 박주영, 안정환, 이천수가 전반 스타톱으로 나섰고 후반에는 안정환 대신 조재진이 투입됐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좌우 윙포워드 박주영과 이천수의 측면 활동은 전반에는 괜찮은 편이었지만 후반에는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또 안정환에게 보급되는 패스가 미드필드를 거쳐 세밀하게 연결되지 않다가 볼이 떠서 전해지거나 패스 자체가 거칠어 원톱 공격수가 결정력을 발휘할 기회를 잡지 못했다. <중원=두 계급 연속된 압박의 실종 아드보카트호의 중원은 가나전에서 박지성, 이을용, 이호로 삼각편대를 짜 베스트에 가까운 진용을 내세웠다. 후반에는 김남일을

가세시켰다. 그러나 큰 그림에서 볼 때 압박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다. 전반 초반 이을용과 이호의 압박이 비교적 관찮게 먹혀들었지만 위낙 개인기가 좋은 가나의 미드필더에게 1대1에서 밀리면서 후반에는 스투패스와 측면 돌파를 많이 허용했다. <수비진=위험지역에서 느슨한 대응 수비진은 오른쪽 윙백 송종국이 아드보카트호에 합류한 이후 가장 좋은 몸놀림으로 비교적 활발한 오버래핑과 사이드 압박을 보여줬을 뿐 중앙에서는 많은 허점을 드러냈다. 전반에는 포백 수비라인의 간격이 중앙 쪽으로 너무 좁혀지다보니 양쪽 사이드 돌파를 자주 허용했다. 수비 숫자의 우위에 불구하고 결정적인 진로를 차단하지 못하는 우도 저질렀다. 후반에는 위험지역에 볼이 투입됐는데도 느슨하게 대응한 게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태극전사 독일 향발

아드보카트호가 최종평가전에서 당한 완패의 불안감을 씻어내고 ‘결전의 땅’ 독일을 향해 장도에 오른다. 딕 아드보카트 감독이 이끄는 23인의 태극전사들은 4일 밤(이하 한국시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가나와 평가전을 치른 뒤 곧장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속소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면서 1차 베이스캠프인 글래스고에서 마무리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축구 국가대표팀은 6일 오전 1시(이하 한국시간)와 오후 6시(이하 한국시간) 글래스고 훈련

### 내일 쾰른에 베이스캠프

장 머레이 파크에서 두 차례 훈련을 끝으로 예정됐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6일 밤 11시 전세기를 타고 독일내 베이스캠프를 차리는 쾰른으로 출발한다. 쾰른에 도착하는 시간은 7일 오전 0시15분. 비행 시간은 고작 1시간15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태극전사들은 저마다 가슴 벅찬 열망을 품고 지난 달 27일 인천국제공항을 떠나왔을 때보다 한층 더 강한 결의를 다진 채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할 시간에 도달했다. 태극전사들은 쾰른에 도착하면 18세기 바로크풍 고성(古城) 호텔인 ‘솔로스 벤스베르크’에 여장을 풀고 오는 13일 밤 10시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토고와 독일월드컵 본선 G조 조별리그 첫 경기에 대비한 최종 탐금질에 돌입한다.

## 이선화 신인왕 굳혔다

을3회 준우승 끝 첫 정상  
LPGA 솔라이트 클래식 최종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신인왕 레이스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선화(20·CJ·사진)가 생애 첫 우승을 안았다. 이선화는 5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켈러웨이의 시류리조트 베이골프코스(파 71·6천071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솔라이트 클래식 최종 라운드에서 8언더파 63타를 몰아쳐 3라운드 합계 16언더파 197타로 정상에 올랐다. 작년 LPGA 2부투어 상금왕 자격으로 올해 LPGA 투어에 입성한 이선화는 올해 들



이선화 3차례나 준우승을 차지한 끝에 마침내 첫 우승을 일궈냈으며 사실상 신인왕 타이틀을 굳혔다. 우승 상금 22만5천달러를 받은 이선화는 상금랭킹 4위(66만414달러)로 순위 상승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KIA, 정영일(진흥고) 오준형(인하대) 1차지명

KIA타이거즈가 2007년도 신인 1차지명 선수로 정영일(18·진흥고)과 오준형(22·인하대·이상 투수)을 확정했다. 188cm, 96kg의 다부진 체격을 지닌 정영일은 전형적인 정통파 투수로 최고 구속 149km의 직구(평균 구속 140~143km)가 일품이며 130km의 슬라이더 각이 예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구위가 묵직하고 파워가 있으며 체력이 뛰어나 완투 능력이 있다. 반면 아직 타자들을 상대하는 운영능

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광주일고-인하대 출신인 우완 투수 오준형은 180cm, 82kg의 체격으로 최고 145km의 강속구(평균 138~141km)와 체인지업, 슬라이더가 수준급이다. 오준형은 올해 9경기에 출전, 4승을 챙겼고 46.1이닝 동안 15사구, 60탈삼진 방어율 0.78을 기록하고 있다. 1~3학년 동안에는 35경기에 출전 3승 7패 52사구, 103탈삼진, 방어율 4.37을 기록했다. /박진표기자 lucky@

## LG 이순철 감독 사퇴

LG 트윈스의 이순철(45) 감독이 5일 사퇴했다. LG 관계자는 “이날 이 감독이 김영수 LG 사장을 만나 성적 부진과 투수 부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로써 지난 2004년 LG의 7대 감독으로 부임한 이 감독은 계약기간인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게 됐다. LG는 양승호 수석 코치를 감독 대행으로 임명했다.